

영광 굴비 눈물 닦고 웃음 찾는다

14~20일 ‘곡우사리 굴비축제’...김영란법 극복 활로 뚫기

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 여파’ 등으로 침체됐던 ‘굴비고장’ 영광 범성포가 곡우 사리 굴비축제 준비로 달아오르고 있다.

영광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굴비축제 추진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를 굴비주간으로 선포하고, 영광 범성면 뉴타운 주민자치센터 일원에서 ‘2017 영광범성포 곡우사리굴비축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굴비축제는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침체한 굴비소비를 활성화하는 한편 주민화합과 굴비의 정통성 및 대표성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추진위원회는 농사철의 시작을 알리는 ‘곡우’(24절기 중 6번째 절기)와 매월 두차례씩 바닷물이 만조에 이르는 ‘사리’가 겹치는 때 잡은 조기가 가장 기름지고 알이 찬 최상품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축제명을 ‘곡우사리 굴비축제’로 정했다. 영광 굴비잡이 어민들은 이 기간에 잡힌 최상품의 조기에 고사리를 깔고 탕을 끓여 조상에 바치는 조기 신산제를 지내왔다.

굴비축제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곡우사리의 기원을 근거로 개막 행사에 조기 신산제를 올리는 한편 오는 20일을 ‘굴비 먹는 날’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축제 관계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어군탐지기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일찍 조기잡이가 끝나고 있지만, 과거



경매·무료시식·할인판매

뮤지컬 갈라쇼 등 행사 다채

영수증 제시하면 ‘한두름 더’

춘궁기에 서민의 배를 채워주던 곡우사리 굴비의 기여도는 서민음식으로 굴비의 가치와 명성을 이어주고 있다”면서 “이 같은 역사성과 의미를 바탕으로 곡우사리 굴비축제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곡우사리 굴비축제에서는 조기 신산제를 시작으로 총체가무곡 ‘이자검과 굴비이야기’ 등이 펼쳐지며, 굴비홍보관과 굴비할인판매, 굴비경매, 굴비요리 무료시식, 굴비여기대회 등 굴비

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 주민과 관광객들이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대학생 뮤지컬 갈라쇼를 준비하는 등 새로운 문화체험을 시도하며, 청소년 페스티벌, 관내 학생 동아리 공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특히 굴비주간 기간 동안 범성포 내 상가에서 굴비를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추가로 굴비를 지급하는 등 굴비 사은품 지급 행사도 개최하는 등 행사를 찾아 온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함께 실속 있는 굴비 구매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축제 추진위는 이 밖에도 영광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유채꽃에 조명을 설치하는 등 야간에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굴비축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영광군과 한빛원자력본부의 지원과 주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열리는 행사인 만큼 김영란법 등의 여파로 침체돼 가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차고 실속 있게 준비하겠다”면서 “영광굴비특품사업단, 굴비협동조합, 굴비정보화마을 등 굴비 관련 단체들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통해 굴비축제의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해가는 주민 모두의 축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국내 산림 내 조성된 수원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달산 옛 수원지의 모습. 수원지 석조 댐 위에 조성된 뚝방 길은 짧은 길이이지만 데크와 난간에 설치돼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유달산 옛 수원지에 인공폭포·생태습지 조성

연말까지 친수공간 만들기로

목포시가 지난해 11월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유달산 옛 수원지에 친수 공간을 조성한다.

9일 목포시에 따르면 국내 산림 내 조성된 수원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달산 옛 수원지에 1300㎡ 규모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둘레 길을 정비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옛 수원지 전수 공간 조성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한 데 이어 올 1월부터 3월까지 수원지 안전진단 및 행정절차 이행을 마쳤다.

이번 사업은 옛 수원지에 인공폭포와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총 6.3km에 달하는 둘레 길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 6억원(국비 3억, 시비 3억)이 투입돼 올 연말 완공 예정이다.

유달산 옛 수원지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 9~1912년 12월까지 2년여에 걸쳐 축조된 저수·저사 댐과 사방시설로 유역면적은 0.1㎢, 저수량은 3,697㎡에 달하고 석조 댐의 높이는 6.3m, 길이는 40m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 거류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던 급수시설로 국내 산림 내 소재한 수원지로는 가장 오래된 역사성이 깊고 보존 가치가 높아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당시 수도관을 매설해 식수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이wert과 돌로 정비된 도랑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했으며, 일본인들은 이곳 주변에 뽕나무를 심어 유원지를 만들었다. 강점기 말엽엔 이 자리에 신사를 신축하기 위해 저수지와 여과지, 배수지 등 중요시설을 전부 파괴해 매몰했다.

특히 이곳은 이 같은 역사성과 함께 박홍률 시장의 야심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유달산 둘레길에 위치해 향후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면 테마가 있는 도심 속 힐링코스이자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기독병원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목포지역 의료계의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다.

서남권 공공 의료기관인 목포시의료원이 50병상 규모의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을 운영한다. 이어 목포기독병원이 이달 1일부터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운영에 들어갔다.

목포기독병원(대표원장 김근호)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서를 교부받아 이달 1일부터 40병상 규모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목포기독병원은 간호사 20명, 간호조무사 6명, 도우미 1명 등 총 27명의 인원을 통합 서비스 병동에 배치했다. 일반 병동은 간호사 1인당 환자가 4~5명 선인데 비해 통합병동은 1.6명에 불과해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병동은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어도 입원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기존 간병인을 고용했을 시 비용이 하루 8만~9만원에 달해 수술 환자의 경우 월 200만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통합 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원선에 불과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병원을 오가며 소요되는 시간 소모를 줄이고 간호사가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간병인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1석3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근호 원장은 “단순 간병비 지원제도와 달리 간호 전문 인력이 포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입원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환자의 치료 결과도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기독병원은 통합 서비스 병동 운영을 계기로 최신 의료장비 확충과 의료진 보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화(花)려한 교감’

노적봉미술관 특별전

내달 28일까지 열려

세월호 목포 신항 거지로 꽃피는 유달산 축제가 전면 취소된 가운데 불꽃구경의 아쉬움을 달래는 전시회가 목포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에서 열린다.

노적봉 미술관은 9일 “유달산 새봄맞이 및 목포 이순신 수군문화제 기념특별전이 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4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화(花)려한 교감’전으로 명명된 이번 전시회에는 박수경·이지호(이상 동양화), 윤석수·최성배(이상 서양화) 등 4명의 작품 32점이 전시된다.

김형순 노적봉미술관 담당은 “꽃그림으로 유명한 4명의 화가들이 혼을 담아 재탄생시킨, 오색찬란한 꽃들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작품을 통해 싱그러움 불가운을 만끽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민선 6기 목포시장 공약 이행률 64%

해양관광·도시재생 적극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새 목포’ 건설을 표방한 민선 6기 박홍률 목포시장의 공약과 지시사항은 얼마나 이행됐을까?

9일 목포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6기 공약은 6개 분야 49개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64%가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49개 공약 중 31개는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이며, 나머지 18개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 당초 공약은 50개였으나 지난해 11월 시민소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각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설치’ 공약은 폐지됐다.

민선 6기 공약의 핵심 골격은 ▲서남

해안 국제 해양관광도시 실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태환경 도시 조성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 ▲풍격 있는 교육문화도시 육성 ▲참여와 소통,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현 등 6개 분야로 집약된다. 이를 세분화한 것이 49개 사업이다.

49개 공약사업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관광경제 수산국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자치행정 복지국 13건, 교육문화 사업단 7건, 안전 도시건설국 5건, 기획관리국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민선 6기 출범이후 지난해 말까지 시장 지시사항은 총 361건으로, 이 가운데 226건은 완료됐고 120건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3건은 추진불가,

2건은 추진이 보류됐다.

시장 지시사항이 주목을 끄는 것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시장이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왔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시장 지시사항을 부서별로 보면 관광경제 수산국 84건, 안전 도시건설국 62건, 도시발전 사업단 53건으로, 이들 3개국의 업무가 시장 지시사항의 55%를 차지했다.

이는 박 시장이 그동안 해양관광, 도시건설, 도시재생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해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임기 내 공약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문제점 해결 방안을 수시로 강구해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지시 해결을 위한 처리결과도 수시로 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02호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대산프리모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 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